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58 (2023. 06. 09. 금)

라마단이 끝나고 방국은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6월 28일(수)에는 고르반이드라는 희생제사가 시작됩니다. 집집마다 소나, 염소등에 이맘(이슬람 종교지도자)이 안수해 주면 동물을 직접 도살하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지요. 이러한 의식이 언제까지 갈 건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신의 죄를 동물에 전가시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속죄가 된다고 믿는 이 믿음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히10:4)

**아가페 현 상황**

1. 5월14일(일)은 방국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늘 마음으로 몸으로 힘들었을 어머니들을 초청해 우리 아이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아이들과 직접 만든 과자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수 어머니 상은 아가페 스쿨에 시판 어머니, 널서리에 알리 어머니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과 스텝들에게 식용유 2L씩을 선물했습니다.

작은 선물인데도 한껏 기뻐하는 모습에 보는 저도 기뻐했습니다.



우수어머니상 -시판 어머니 / 10년 동안 정성으로 통학시키신 훌륭한 분



빠엘이 엄마에게 선생님과 직접 만든 꽃을 드리고 있어요.



널서리 교사 리빠가 선물로 받은 식용유를 받고 장난 섞인 표정을... ㅎㅎ

2. 센터 아이들에 수두와 홍역이 돌았습니다.

처음에 한 아이가 수두를 앓더니 두 세 명씩 돌아가며 1주~2주씩 앓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라자가 크게 앓고 흠에 격리되었다가 2주일만에 나왔고, 따하가 나옴으로 수두는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3. 망고(아암) 철이어서 망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ㄱㅇㄱ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35키로 망고를 사서 실컷 먹었습니다.

망고가 방글라로 "아암"이거든요. ㅎㅎ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이지요.

싱싱한 것을 사서 하루 놓아두었다가 깎아 먹습니다.

ㅋㅋ 먹느라고 아이들 모습을 깜빡 잊고 못 찍었습니다

학교, 널서리 모두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방학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먹일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망고는 방국 망고가 짤 맛있어요.



부엌 앞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망고들~~~~ ㅋㅋ 기다려랏~~~

4. 다음 학기 부터는 16세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활 교육 대신 목공 및 가정 기기 기초수리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녀석들이 크니까 사춘기가 되어 실실 웃으며 말을 안 듣는다고(?) ㅎㅎㅎ

점심시간만 되면 손 씻으며 머리에 무스대신 물을 묻혀 짹 달라붙게 멋을 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쥬.

처음에는 못박기, 빠기, 나사못 박기 등을 시작하여 작은 것 하나씩을 만들어 보고 집안에 고장 난 것들을 어느정도 수리할 수 있는 정도 만 교육시켜 볼 예정입니다.



생활교육 중-옷 입히고 벗기기

5. 너무 더워요.

기온이 39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체감온도가 44도~45도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도 너무 더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이고 더욱이 하루에도 서너번씩 정전이 되어 한시간 이상 들어오지 않아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물도 안 나오게 되니 이보다 총체적 난국은 없습니다. 모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가페 센터는 5층 건물에 1,2층으로 다른 양철 지붕집에 비하면 덜 더운 편이고 자가 발전기를 사용하여 전구와 팬 몇 개 정도로 1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참으로 힘듭니다. 올해는 비도 안 와서 더위를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어 다들 눈이 반쯤은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스리랑카의 몇 달 전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국가부도 상황이 왔었는데...방국은 괜찮다고 하더니 현실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 아이들과 스텝들이 열, 설사, 복통 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6. 홈2(라자와 포에즈 거주)로 사용하던 집에서 이사를 나와야 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주여... 늘 락스로 닦는데도 냄새가 난다기에 붙어 싸우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몇 곳 봐 둔 곳 중 한곳을 계약했습니다. 방이 2개인데 화장실이 좌변기가 없어서 공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7. 라킵네 집도 이사시킬 계획입니다.  
비가오면 물이 차서 집 앞이 20센티는 잠기고 물이 만나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 조금 나은 곳으로 이사시킬 계획입니다. 합당한 방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8. 아가페 여름 방학이 6월28일(목) ~ 7월 15일(토)까지 진행됩니다.  
고르반 이드를 시작으로 초등학교들의 방학이 시작되어 아가페도 이 시기에 방학을 합니다. 올해는 방학을 해도 마음이 짠한 것은 집이 센터보다 더 덥고 고생스러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무썽 건강하게 있다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방국 상황**

뉴스에서는 전력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도가 지나쳐서 거의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상가몰에 전기 연료값을 체납해서 화력 발전소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참으로 가난한 나라는 왜 정치적 부패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지...

#### **개인적인 상황**

1. 제가 미국 뉴저지 밀알 초청으로 미국을 갑니다.
  - 1) 7월 4일(화)에 출발하여 7월27일(화) 방국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목적은 세계 밀알 연합회 방글라데시 지부장으로 선임되어 임명장 수여 및 뉴저지 밀알 장애인 캠프(7/20 목~7/22 토)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2) 7월6일(목)~7월13일(목)까지는 제가 비자를 쓰고 있는 NGO(FOB/Friends of Bangladesh)의 복음캠프(Good News Camp)가 보스톤 케이프코드에서 두 달 동안 열리는데 8일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방봉사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 3) 다시 뉴저지에 돌아와 쉬는 동안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밀알 집사님 동행) 캠프 사전준비 보조 및 캠프 참가를 하게 됩니다.
2. 미국에서 돌아오면 비자 수속을 하게 될 것이고 내년 2월 만기 이전에 비자를 받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은 NGO비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걱정인데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다른 한국 선생님들의 비자를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점심 먹은 후 휴식을 취하며 저도 못하는 퍼즐 맞추기 열일 중...ㅎ(돌라,사밀,압둘)



만들기 시간-천사와 함께 라미아, 스크래치 파힘, 그리고 아가페 롤렉스 시계 매장...ㅎㅎㅎ



소근육 운동 - 퍼즐 맞추기  
널서리 무란

널서리 최고 꾸러기 사뵐.ㅎ



전세계 남녀노소 불문 최애  
간식 슈퍼츄즈 ㅋㅋㅋ



시크한 아부보꿀, 아메나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빠엘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기도부탁 드립니다. 심장의 구멍이 작아지고 막힐 수 있도록...
- 2) 걷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걷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러따(요리사)의 CT 및 MRI 검사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 감사 드립니다.
- 4)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5) 더운 시간, 그리고 방학기간 중 우리 아이들과 스텝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6) 라킵네 이사를 위해 적당한 방이 구해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 7)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에9:22***

모르드개를 매어 달려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의 날이 길한 날이 되는 기적...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